

전남대병원·광주교대 청렴도 최하위등급

광주과기원 최하위 5등급...강진의료원은 4등급 권익위, 전국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 청렴도 조사

전남대병원과 강진의료원 등 광주·전남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올해 공공기관 의료 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전국 46개 공공 의료기관(국립병원 16개, 의료원 30개)을 대상으로 한 2018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공개했다.

공공의료기관 청렴도는 의약품·의료기 판매업체와 환자 보호자, 직원 등 1만 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리베이트 등 부패사건 발생현황, 진료비 과다 청구 내역 등을 점수화해 측정했다.

청렴도 측정결과 지난해 4등급에 속했던 전남대병원은 올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떨어졌고, 강진의료원은 지난해 3

등급에서 한 등급 떨어진 4등급을 받았다.

전남대병원은 부패방지제도분야에서만 3등급을 받은 반면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 분야와 내부업무, 조직문화 분야 등 전 분야에서 하위등급인 4등급을 기록했다.

환자진료 분야에서는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에서 전북대병원·부산대병원과 함께 청렴도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광주·전남지역 3개 의료원 중에서는 강진의료원이 지난해 3등급에서 올해 4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했고, 목포와 순천의료원은 전년과 같은 2등급을 유지했다.

강진의료원은 의약품·의료기기 구매와 환자진료 분야에서는 3등급에 이름을 올렸지만, 내부업무와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각각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하면서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전국 공공의료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51점으로, 지난해 7.64점과 비교해서도 하락한 수치다. 16개 국립병원 중 1등급은 없었고, 강릉원주대치과가 유일하게 2등급에 속했다.

영역별로 보면 내부업무(7.34점), 조직문화(7.21점), 부패방지제도(6.29점) 등 부문에서 청렴도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은 지난해 30.9%에서 올해 11.9%로 크게 하락했는데, 권익위는 이를 두고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정인에게 입원·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해주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의료 특혜 관련 인식 역시 7.98점으로 지난해보다 0.44점 올라 개선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이날 47개 국·공립대학에

대해 청렴도 측정 결과도 발표했다.

광주·전남 소재 4년제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순천대가 유일하게 종합 청렴도 2등급에 올랐고, 전남대와 목포대, 목포해양대학은 3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광주과학기술원은 유일하게 2년 연속 5등급을 기록했다.

교대 중에서는 전국에서 광주교육대학만 유일하게 5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계약 분야 청렴도에서는 2등급을 기록했지만,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에서 5등급을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공립대의 청렴도는 최근 4년간 지속 상승하고, 공공의료기관은 소폭 하락하는 등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청탁금지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리베이트 관행 개선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올 최대 뉴스 '도시재생 뉴딜 사업'

'2018 도정 10대 뉴스' 발표

전남도민과 공무원들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및 일자리 창출'을 올해 전남지역 최대 뉴스로 꼽았다.

전남도는 최근 도민과 공무원 2185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2018 전남도정 10대 뉴스'를 선정해 20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올해 언론에 보도된 도정 뉴스 가운데 도민의 관심을 받았던 35개 주요 뉴스 가운데 10개 뉴스를 복수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 8곳 선정 및 일자리 1800개 창출'을 응답자 중 837명(38.3%)이 뽑아 올해 최대 뉴스로 선정됐다.

이어 '무안국제공항 고공행진 사상 첫 50만 돌파' (539명·24.7%),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사업 본격화' (389명·

17.8%), '내년 예산안 7조 시대 개막' (329명·15.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예술성·대중성 합격점' (307명·14.1%) 순이었다.

또 '수도권 농산물 공동물류체계 구축', '민선 7기 공식 출범', '관광객 5000만 시대 열렸다',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축제 전남 GT대회 영암 경주장서 개최', '전남도 제안 섬의 날 확정' 등도 10대 뉴스에 올랐다.

최형열 전남도 대변인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선정도 대규모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낙후한 지역 여건이 보다 활기 있게 변화할 수 있다는 지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앞으로도 여론을 잘 살피고, 도민에게 원하고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파악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22개시군 상생 간담회 주요 현안 논의·공동대응키로

전남도와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이 20일 민선 7기 첫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를 마련, 주요현안을 논의하고 공동대응키로 했다.

전남도는 이날 무안군청 회의실에서 김영록 지사와 22개 시·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시·군 상생협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민선 7기들어 두 번째로 도-시·군 상생발전현황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시·군에서 추진한 우수사례 소개를 통해 시·군 간 선의의 경쟁과 정책 벤치마킹을 유도하는 등 상생 시장이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AI 특별방역과 권역별 공동 관광마케팅 체계 구축, 해양쓰레기 최소화 대책,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 도정 및 시·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상생협력 강화키로 했다.

전남도는 2018년 도정 주요 성과와 2019년 운영 방향, 주요 현안사항을 설명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어린이들에 성탄절 선물 전달 광주시 서구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회장 이영수)는 20일 아이월드어린이집에서 학용품, 피자 등 성탄절 선물을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최현배 기자 choi@

전남도의회 의정비 대폭 인상에 제동

월정수당 18%→3.6%로

전남도의회의 의정비 대폭 인상 움직임이 막판 제동이 걸렸다. 월정수당을 18% 인상을 전남도의회의 요구를 전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3.6% 인상으로 최종 결정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전남도의회 내년도 월정수당을 올해 3280만원 보다 3.6% 인상한 3398만원으로 확정했다.

월정수당 3398만원에다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포함해 전남도의회 내년도 의정비는 5198만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의정비 5080만원에 비해 2.3%인상률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64.6% (215명)가 5080만원~5198만원을 선택해 이같이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남 22개 기초의회는 완도군의회와 진도군의회가 각각 19%·15% 인상을 요청한 가운데 공평화와 여론조사

가 진행 중이다.

내년도 월정수당을 동결한 곳은 목포시의회와 고흥군의회다. 목포시의회는 월정수당 2329만원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해 의정비 3649만원을, 고흥군의회는 월정수당 1869만원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더해 의정비 3189만원을 각각 확정했다.

해남군의회는 1.3%, 여수시의회는 2.5% 인상에 그쳤다. 담양·곡성·구례·보성·회성·장흥·강진·영암·무안·함평·신안 군의회는 월정수당 2505만원과 의정비 1320만원을 포함해 전체 의정비가 3825만원으로 인상된다. 전남 지방의회 최대 인상률이다. 장성군의회 19%, 영광군의회 12.6%, 순천시의회 12%, 광양시의회 9.5%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 미래산업 찾아라" 전남도 R&D 예산 대폭 확대

2022년까지 8328억으로 증액

전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발굴을 위해 연구개발(R&D) 사업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전남도는 20일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면밀한 분석과 토론을 거쳐 R&D 예산 확대·추진체계 구축·국책연구기관 유치·산학연 연계사업 등을 담은 '전남 R&D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남 R&D 예산을 2022년까지 전국 1.2% 수준인 8328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도 자체 연구개발 사업비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던 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도 신성장산업과가 총괄하고, 전남 과학기술진흥센터를 전담부서로 지정해 R&D 사업을 조사·분석·

지원하도록 했다.

또 기업 부설 연구소 설치 확대·기술사업화 지원 및 성과 확산, 지역 대학 우수 연구인력 육성, 산학연계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특화 산단별 연구개발 기반 조성 등 산학연 연계사업 활성화 등도 포함했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점에 맞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 유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중앙부처 R&D 관련 국책

연구기관과 분원 유치에도 나선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분소와 섬발전연구진흥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을 유치하고 특화 산단별 연구개발 기반 조성 등 산학연 연계사업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권역별 대·중소기업과 산학연이 연계한 R&D 협력사업 육성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R&D 예산 확보를 위한 동기유발을 위해 기획예산 5억원을 확보하고 연구과제 발굴과 중앙부처 R&D 공모사업에 대응하기로 했다.

/최권익기자cki@kwangju.co.kr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